MONEYLOG BRIEFING

2026년 귀속 · 2027년 1월 연말정산 대비

13월의 월급 사수 가이드

2026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 전략
남은 두 달, 환급액을 바꾸는 체크리스트

카드 25% 문턱 | 월세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 부양가족 | 근로장려금 | 경정청구



머니로그 브리핑
goldmoneys.com

차례

시작	이 가이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2
1장	연말정산 5분 만에 이해하기 계산 구조 · 세율표 · 2026 귀속 일정	3
2장	미리보기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11~12월 행동 체크리스트	5
3장	신용카드 25% 문턱 계산법 공제율 · 한도 · 계산 예시	6
4장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관련 공제 요건 · 서류 · 청약저축	8
5장	연금저축·IRP로 세금 돌려받기 최대 148.5만 원 환급	10
6장	놓치기 쉬운 공제 모음 부양가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11
7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인법	14
8장	이미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치 돌려받기	15
부록	한 장 체크리스트 · 용어 사전 · 참고 자료	16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기준

START

이 가이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남은 두 달(11~12월)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그 두 달 동안 직장인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것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 [ ] 내 연말정산이 환급인지 추징인지 결정되는 구조
- [ ] 11~12월에 꼭 해야 할 행동 3가지
- [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기준
- [ ] 월세, 연금저축·IRP,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요건
- [ ]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내용(자녀 수별 카드 공제 한도, 고향사랑기부 공제율, 예체능 학원비 등)
- [ ]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법, 놓친 공제를 최대 5년 치 돌려받는 경정청구

170만	148.5만	5년
월세 세액공제 최대	연금저축·IRP 최대 환급	경정청구 가능 기간

활용법

2장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하세요. 해당되는 항목의 장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마지막 부록은 1월에 서류를 낼 때 옆에 두고 쓰는 한 장 요약입니다.

금액은 원 단위이며,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율입니다. 기준일 현재 기사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기준은 국세청 공지를 따릅니다.

CHAPTER 1

연말정산 5분 만에 이해하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미리 떼 간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추징)입니다.

결정세액이 계산되는 순서

총급여
연봉 −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 원, 보육수당 등)

▼ 근로소득공제 (급여에 따라 자동 적용)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료,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

과세표준

▼ × 세율 6~45%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자녀,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플러스면 환급, 마이너스면 추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절세액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므로 연봉과 상관없이 효과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소득공제 100만 원의 절세 효과
1,400만 원 이하	6%	약 6.6만 원
1,400만~5,000만 원	15%	약 16.5만 원
5,000만~8,800만 원	24%	약 26.4만 원
8,800만~1억 5,000만 원	35%	약 38.5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8~45%	약 41.8만~49.5만 원

연봉 4,000만~6,000만 원 직장인은 대부분 15% 구간에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100만 원은 세금 약 16.5만 원을 줄여 줍니다. (절세 효과는 지방소득세 포함)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시기	할 일
2026년 11월 초중순 (예상)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 확인.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으며, 올해 날짜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 기부의 마감일. 세대주 여부와 부양가족 요건도 이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7년 1월 중순 (예상)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평년에는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2027년 1~2월	회사에 공제 자료 제출. 보통 2~3월 급여에 환급액이 들어옵니다.
2027년 5월	빠뜨린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도 이때입니다.

CHAPTER 2

미리보기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12월 31일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 3가지는 연내에 확인해야 환급액을 바꿀 수 있는 항목입니다.

①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가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3장).

- [ ]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
- [ ] 내 총급여 × 25% 금액 계산
- [ ] 아직 못 넘었다면 혜택 많은 신용카드,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② 연금저축·IRP에 납입할 여력이 있는가

연말에 가장 크게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됩니다(5장).

- [ ] 올해 납입액 확인 후 부족분을 12월 말 전에 납입(연금저축 600만,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③ 세대주·부양가족·주거 요건이 맞는가

월세 공제와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 [ ] 월세 사는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는지
- [ ] 부모님·배우자 연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 [ ] 부모님을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미리 정했는지(중복은 가산세와 함께 추징)
- [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을 연봉 높은 쪽에 몰아 넣는 게 유리한지

CHAPTER 3

신용카드 25% 문턱 계산법

25%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문턱 아래 금액은 어떤 수단으로 썼든 공제가 0원이라, 포인트·할인이 많은 신용카드가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사용처·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 문화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공제 한도 2026 변경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이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총급여	자녀 없음	1명	2명 이상
7,000만 원 이하	300만	350만	400만
7,000만 원 초과	250만	275만	300만

추가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문화비 제외)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

신용카드 1,500만 원과 체크카드 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합니다.

① 문턱 = 4,000만 × 25%	1,000만 원
② 문턱은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움 → 신용카드 초과분	500만 원
③ 신용카드 500만 × 15%	75만 원
④ 체크카드 500만 × 30%	150만 원
⑤ 소득공제 합계 (기본한도 300만 이내)	225만 원
줄어드는 세금 (세율 15%, 지방세 포함)	**약 37만 원**

비교

같은 2,0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공제는 1,000만 × 15% = 150만 원으로 줄고, 절세액도 약 2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남은 두 달 사용 전략

-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로 전환하세요.
- 기본한도를 다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처럼 추가한도가 따로 있는 사용처를 활용하세요.
- 문턱에 한참 못 미친다면 차라리 카드 혜택을 최대한 받는 쪽이 이득입니다.
- 맞벌이라면 카드 사용을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 25% 문턱을 먼저 넘기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서로 넘겨받을 수 없으니, 각자 쓸 때 미리 나누어야 합니다.
-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세금·공과금, 해외 사용액, 상품권 구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CHAPTER 4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관련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 최대 17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가장 큰 세액공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항목	기준
대상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소득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주택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주소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
한도	연 월세액 1,000만 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

월세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17% (총급여 4,000만 원) — **약 122만 원 환급**

2026 귀속부터 달라지는 점

- 직장 때문에 다른 시·군에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도 각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입니다.
-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용 100㎡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 됩니다.

챙겨야 할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납부 증빙.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함께 확인할 주택 관련 공제

공제	대상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공제 (최대 120만 원).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 전세자금 대출 상환자	상환액의 40% 공제.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 한도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구입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자 (1주택 세대주)	상환 기간·방식에 따라 연 600만 ~2,000만 원까지 이자 공제

CHAPTER 5

연금저축·IRP로 세금 돌려받기

연금저축과 IRP에 연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12월에도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148.5만
총급여 5,500만 이하
세액공제율 16.5%

118.8만
총급여 5,500만 초과
세액공제율 13.2%

900만 원을 모두 납입했을 때의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

한도 구조

- 연금저축만: 연 600만 원까지 공제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공제
- IRP만 따로도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추가 납입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12월 납입 전 체크리스트

- [ ] 금융사 앱에서 올해 누적 납입액 확인
- [ ] 부족분을 12월 중순까지 납입(금융사별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음)
- [ ]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무리하지 않기: 만 55세 전에 중도 인출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 [ ]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운지 미리보기로 확인: 낼 세금이 없으면 세액공제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CHAPTER 6

놓치기 쉬운 공제 모음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거나 요건을 잘못 알아 빠뜨리는 공제들입니다. 해당되는 항목만 체크하세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 [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
- [ ]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은 경로우대 100만 원 추가
- [ ] 장애인(암 등 중증환자 포함, 의사 소견서 필요)은 200만 원 추가, 나이 제한 없음
- [ ] 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은 만 9세 이상 자녀 대상. 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 이상 1명당 40만 원
- [ ] 2026년 출산·입양: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넘긴 의료비의 15%를 공제합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 [ ] 본인·만 65세 이상·만 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그 외 가족은 연 700만 원)
- [ ]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이 없어도 공제 가능
-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연 50만 원)는 간소화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안경점 영수증 챙기기
- [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 [ ]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함(간소화 자료에 표시됨)

교육비 세액공제 (15%)

- [ ] 2026 신규 만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체육시설 이용료(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2026년 1월 이후 지출분)
- [ ] 2026 신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등록금 공제 가능(소득요건 폐지, 1명당 연 900만 원)
- [ ]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원비(1명당 연 300만 원)
- [ ]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한도 없음
- [ ]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명당 연 50만 원)는 구입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공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귀속부터 공제율이 올랐습니다.

고향사랑기부 금액 구간	공제율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20만 원 2026 변경	40% (기존 15%)
20만 원 초과	15%

20만 원 기부하면

14만 원을 돌려받고,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공제됩니다.

그 밖의 항목

- [ ]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1인당 50만 원(생애 1회). 2026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 [ ] **보육수당 비과세:** 2026년부터 만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기존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15~34세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90% 감면(연 200만 원 한도).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 [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12% 세액공제(장애인 전용보험 15%)

CHAPTER 7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인법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과 별개로 직접 신청해야 받는 돈입니다. 2026년 소득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총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 배우자·부양자녀·부양 부모 없음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등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주택·토지·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 **신청 시기:** 2026년 소득분 정기 신청은 2027년 5월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하반기분은 2027년 3월)도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문자·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요건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예정)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2026년 소득분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CHAPTER 8

이미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치 돌려받기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법정신고기한(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3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2021년 귀속분(기한 2027년 5월 31일)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사례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다.
- 월세 서류를 내지 않아 월세 공제를 못 받았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
- 안경 구입비, 교복비, 기부금 영수증을 빠뜨렸다.
- 장애인 공제(암 등 중증환자 포함)를 몰랐다.

신청 순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메뉴를 엽니다(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3. 해당 연도를 선택하면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4. 빠뜨린 공제를 추가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제출하면 보통 2개월 안에 환급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는 홈택스의 '미환급금 조회'에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APPENDIX

한 장 요약: 연말정산 최종 체크리스트

12월 31일까지

- [ ] 미리보기로 카드 25% 문턱 확인 후 결제 수단 조정
- [ ] 연금저축·IRP 납입액 채우기(합산 900만 원)
- [ ] 고향사랑기부 10~20만 원
- [ ] 월세 주소 전입신고, 세대주 여부 확인
- [ ]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을지 가족과 정하기

2027년 1월 서류 제출 때

- [ ] 간소화 자료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받기
- [ ]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제출
- [ ] 안경·교복·예체능 학원비 등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추가
- [ ]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에서 빠졌는지 확인
- [ ] 중복 공제가 없는지 마지막 확인

읽기 전에 알아 둘 점

이 가이드는 기준일(2026년 10월 24일)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요건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용어 사전

용어	뜻
귀속	소득이 발생한 연도. 2026년 귀속 = 2026년에 번 소득
총급여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대부분의 공제 기준이 됩니다.
기납부세액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 간 세금의 1년 합계
결정세액	모든 공제를 적용한 뒤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 주는 공제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공제
간소화 자료	국세청이 병원·카드사·학교 등에서 모아 주는 공제 증빙 자료
경정청구	이미 끝난 신고를 고쳐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참고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미리보기, 간소화 자료, 경정청구, 장려금 신청
- 국세청 (nts.go.kr):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공지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자료 출처

- 한국세정신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한국세정신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당 50만원 상향
- 한국세정신문, 근로장려금 개편안
- KB Think, 2027 연말정산 바뀌는 점
- 일간NTN,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MONEYLOG BRIEFING

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마세요

머니로그 브리핑은 직장인과 사회초년생이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돈 정보를 정리합니다.

정부 지원금·숨은 환급금

청약·내집 마련·전세 안전 체크

연말정산·절세·연금

goldmoneys.com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이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무단 전재·재배포를 금합니다.